

환경·안전·보건은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자원이 크게 부족해 문제해결 역량이 취약합니다. (재)숲과나눔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담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만 4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가 해온 일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객관화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해보고자 임팩트 측정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사회적가치연구원을 비롯해 함께하는 든든한 학습 커뮤니티를 만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재단 사업 중에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아이디어 지원 사업,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 등도 꾸준히 측정, 평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함께한 임팩트 평가가 (재)숲과나눔이 앞으로도 가고자 하는 길에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희망하며 조언과 응원 바랍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
장재연 이사장

 재단법인 숲과나눔

03.

숲과나눔 - 인재양성·석박사 과정 장학 지원 사업

Purpose 우리가 임팩트 측정을 하는 이유

불확실성이 커지는 격동의 시대, 끝없는 기술변화의 시대다. 미래 예측이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해결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장 취약하고 위협받는 것이 환경·안전·보건 분야다. 환경·안전·보건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 (재)숲과나눔은 2018년 7월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담론을 개발해 문제 해결에 기여, 숲과 같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올해로 설립 5년차를 맞이한 (재)숲과나눔은 재단 사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재)숲과나눔의 전체 사업을 목록화하여 사업별로 적절한 평가법을 제시하고, 재단 설립 이후 지금까지의 활동과 지원이 연구자, 활동가, 학생, 관련 조직 그리고 나아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하며, 향후 재단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였다.

Impact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를 통해 공익재단 활동의 임팩트 측정이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제 막 시작된 분야로서 아직 학술적 방법론이나 객관적 평가 방법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익재단 사업의 임팩트 측정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유관 기관이 함께 협력하며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과제이고, Impact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 역시 그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재)숲과나눔과 같이 사업 영역이 인재양성, 대안개발, 협력사업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단 전체의 임팩트를 평가할 방법은 더더구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사업별로 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하면서 장기간 지속적인 평가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에 (재)숲과나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여 개가 넘는 사업 중에서 '석박사 과정 장학지원사업'을 첫 번째 임팩트 측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석박사 과정 장학지원 사업'은 (재)숲과나눔의 가장 중요한 설립 목적인 미래인재 양성 사업 중에서도 첫 번째 목록을 차지하는 사업이다. 또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은 다른 공익재단에서도 가장 많이 진행되는 유형의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숲과나눔의 '석박사 과정 장학 지원 사업'의 특성과 성과를 분석하고 일반적인 장학사업과의 차별성을 비교하는 것은 개별 사업의 임팩트 측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재)숲과나눔의 모든 사업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전략이 만드는 차별화된 임팩트를 평가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숲과나눔은...

2018년 7월 설립된 (재)숲과나눔의 사업은 크게 인재양성, 대안개발, 협력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성과 합리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잠재력이 있는 청년들과 젊은 학자들을 발굴하고, 재정적 지원과 함께 멘토링, 연구과제 수행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워크숍과 캠프, 학술 행사 등을 통한 상호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안개발 분야에서는 단계별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정책화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안과 담론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과제별 포럼 조직, 장학생과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 환경학술포럼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협력사업 분야에서는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함께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협력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인식 향상을 위한 정보, 교육, 문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 최초의 산업안전공익센터인 일환경건강센터의 설립, 흩어진 환경 자료와 사진을 체계적으로 모아 제공하는 아카이브 구축, 시민 인식 향상을 위한 주제별 환경사진전 개최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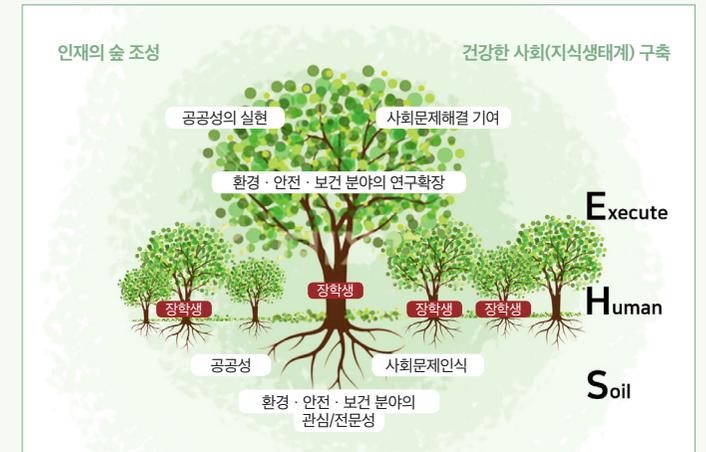
Our Impact 임팩트 정의하기

본격적인 임팩트 측정에 앞서 (재)숲과나눔의 지원을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명확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재)숲과나눔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단순히 논문을 잘 쓰는 연구자가 아니었다. 전문성 외에도 '공공성'을 실천하는 연구자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렇다면 '공공성'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재)숲과나눔은 환경·안전·보건 분야에서 '공공성'을 가진 인재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환경·안전·보건 분야는 시민들의 감수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국가와 사회의 도덕성 및 공공성에도 직결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환경·안전·보건 문제와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재발 방지와 사회구조의 개선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분쟁과 갈등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재)숲과나눔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상으로 '가장 공공성이 강한 과학자'이자 '가장 과학성이 높은 사회 혁신가' 타입을 지향한다. 합리적인 문제 해결 대안과 담론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이해집단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춰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재)숲과나눔 석박사 과정 장학 지원 사업은 지식 생태계 구축을 통한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인재 양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흔히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나무에 심는 일'에 비유하는데, (재)숲과나눔은 잘 자란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보다는 다른 생명과 어우러진 '인재의 숲'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재)숲과나눔의 영문명인 KOREA SHE FOUNDATION의 SHE는 환경·안전·보건 각각의 영어 이니셜(Safety·Health·Environment)에서 따온 것이다. (재)숲과나눔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성과는 또 다른 SHE(Soil·Human·Execute) 임팩트로 정리할 수 있었다. 전문성과 공공성을 토양(Soil)으로 삼은 장학생들(Human)이 사회문제 해결을 실행하는(Execute)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재)숲과나눔이 바라는 모습이다. (재)숲과나눔이 지향하는 '인재의 숲'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재)숲과나눔 인재양성 프로그램 석박사 과정 장학지원 사업은 2018년 말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4기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장학지원 건수로는 총 124건, 2년 연속 지원이 있어 장학생 수로는 총 81명을 지원했다.¹⁾ 선발된 장학생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학사업의 공통적인 기본 취지이겠지만, (재)숲과나눔 장학지원 사업은 그에 그치지 않고 장학생의 전문성과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추가적이고 차별적인 전략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등록금 전액 이외에도 전문 서적 구입 등을 위한 학습비를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연구 멘토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인문, 사회 분야 서적에 대한 서평 쓰기, 강연 프로그램, 장학생 캠프, 연구 동아리 지원, 학술 포럼 등

1)

(재)숲과나눔 석박사 과정 장학 지원 사업 사업은 1년마다 장학생을 선발하며,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다양한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생들이 동료들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논의하고 생각하며, 나아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재)숲과나눔의 석박사 과정 장학지원 사업이 일반적인 장학사업과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이론으로 정리한 석박사 과정 장학지원 사업의 개인 차원의 핵심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는 장학생의 연구 역량이 향상되는 것, 둘째는 장학생의 공공성이 향상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개인 및 생태계 차원에서는 건강한 지식 생태계를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활성화되는 것이었다. 이번 Impact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에서는 장학생 개인의 변화에 집중해 임팩트를 측정하기로 했다.

석박사 과정 장학지원 사업의 변화이론

Activities(활동)	Short-term Outcome (단기 성과)	Long-term Outcome (장기 성과)	Impact(임팩트)
- 등록금 전액 지원 (연간 최대 1,400만 원) - 매월 학습비 지원(월 20만 원) - 연구 멘토링	장학생의 연구 역량 향상	- 문제해결 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건강한 지식생태계 구축
- 서평 쓰기 (매 학기 2편 작성) - 연구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강연 프로그램/ 포럼 및 세미나 등)	장학생의 공공성 향상	- 환경·안전·보건 분야 연구 토대 형성, 발전	
- 장학증서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 장학생 캠프 - 풀씨연구회(연구 동아리) - (재)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 타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시민과 학풀씨, 풀씨, 풀씨아카데미 등)	건강한 지식 생태계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활성화	- 사회 난제 해결을 통한 가치 실현	

Impact Measurement 임팩트 측정하기

(재)숲과나눔의 석박사 장학지원 사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장학생'으로, 장학생들이 얼마나 재단이 지향하는 인재상에 부합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했다. 그래서 (재)숲과나눔은 '린 데이터(Lean Data)' 방법론을 채택하여, 1~4기 장학생을 대상으로 임팩트를 측정했다. 설문 응답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선택했다.

핵심 질문(Core Impact Question)

“석박사 장학지원 사업은 장학생들의 전문성 함양과 공공성 실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임팩트 측정을 위한 문항은 앞서 정의한 핵심 질문과 임팩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도출됐다. 석박사 장학지원 사업이 장학생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①나의 변화와 ②공공성의 실현 관점으로 구조화하고, 22개 세부 설문 항목을 도출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프로그램 평가 항목도 추가했다. 임팩트 측정 설문조사에는 전체 장학생 대상자 81명 중 총 61명(75.3%)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61명 중 1기는 32.8%(20명), 2기는 39.3%(24명), 3기는 42.6%(26명), 4기는 41%(25명)이었다. 이 중 2년 동안 장학 지원을 받는 장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55.7%(34명)을 차지했다.

(재)숲과나눔 석박사 장학 지원 사업의 핵심 임팩트 지표 및 프로그램 평가 항목

구분	핵심 지표	핵심 질문
석박사 장학지원 사업을 통한 변화 측정	나의 변화	전문성 함양 인문·사회학적 소양 확장 연구 철학의 변화 (사회) 문제해결 역량 향상
	공공성의 실현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확보됐는가?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는가? 연구 주제에 사회문제를 더 고려하게 되었는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 역량이 향상되었는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프로그램 평가	만족도	(재)숲과나눔 석박사 장학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차별점	기타 장학 프로그램과의 차별점
	인지도 평가	(재)숲과나눔 석박사 장학지원 사업의 인지도 평가
	추천 지수	(재)숲과나눔 석박사 장학지원 사업 추천 의향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세부 평가 등

석박사 장학지원 사업을 통한 나의 변화

장학지원 사업을 통한 장학생의 내재적 변화를 ①전문성 함양 ②인문·사회학적 소양 확장 ③연구 철학의 변화 ④(사회)문제 해결 역량 향상 4가지 항목으로 측정했을 때, 장학생의 대다수(95.1%)가 전문성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해 가장 많은 변화가 나타났던 것으로 측정되었다. 연구 철학의 변화(85.3%), 인문·사회학적 소양 확장(68.9%), (사회)문제 해결 역량 향상(65.6%) 영역에서도 과반수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1) 전문성 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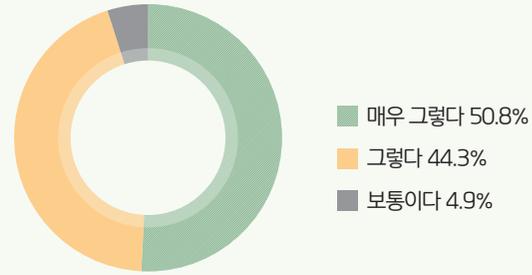
‘석박사 장학지원을 통해 나의 전문성이 안정적으로 개발되었는지’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0.8%)이 ‘매우 그렇다’, 44.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대다수(95.1%)가 장학지원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장학지원을 통한 주당 평균 24.51시간의 집중 학습 시간이 확보되었다고 응답했다.

(재)숲과나눔은 장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과 더불어 매월 학습비 (2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나의 전문성이 안정적으로 개발되었나요?

24.5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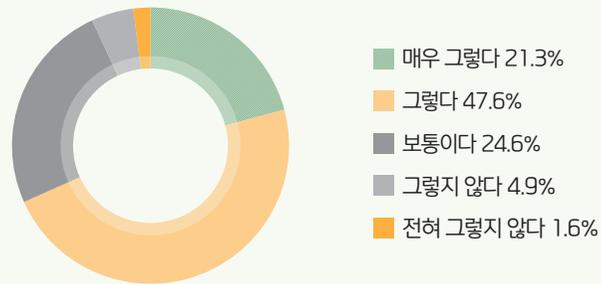
1주일 평균 추가로 확보된 집중 학습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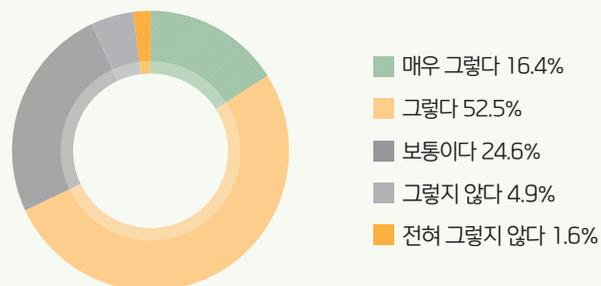
2) 인문·사회학적 소양 확장

(재)숲과나눔은 장학생들이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공공성을 높이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서평 작성, 강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²⁾ 이번 임팩트 측정에서는 '서평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을 물어보았다. '서평 작성 프로그램이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21.3%, '그렇다'가 47.6%로 긍정적인 응답이 주를 이뤘다. 또한 응답자의 68.9%가 '서평 작성'을 통해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답했다.

'서평 작성'을 통해 인문·사회학적 소양이 높아졌나요?



'서평 작성'을 통해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높아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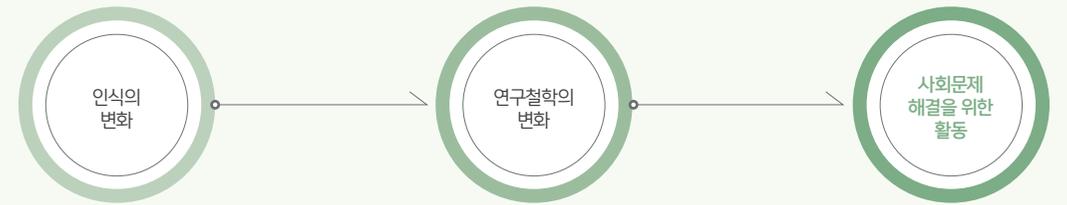


2) (재)숲과나눔에서는 추천 도서 50권을 목록으로 만들고, 학기 중 2권에 대한 서평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추천 도서 중 2권을 장학 증서 수여식 때 선물로 수여한다.

3) 연구 철학의 변화 및 사회 문제해결 역량 향상

(재)숲과나눔은 인재양성을 통해 환경·안전·보건 분야 난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지식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재단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의 향상을 기반으로 연구철학이 변화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는 등 활동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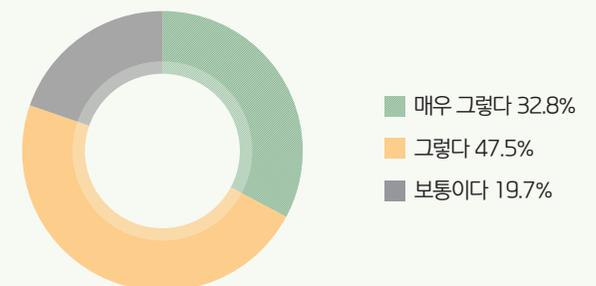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임팩트 창출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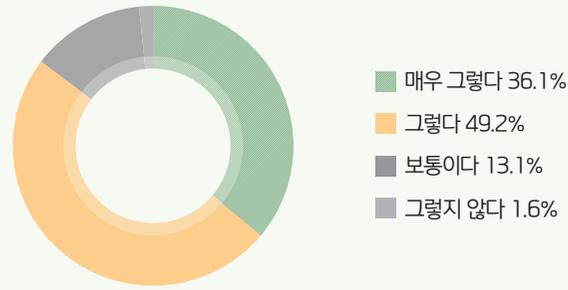
먼저 석박사 장학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32.8%, '그렇다'가 47.5%로 나타나 장학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보다 연구주제나 내용에 있어서 사회문제를 더욱 고려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36.1%, '그렇다'가 49.2%로 나타나 대다수의 연구 철학에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인식과 철학의 변화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을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27.9%, '그렇다'가 47.5%로 10명 중 7명(75.4%) 꼴로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16.4%, '그렇다'가 24.6%로 약 41%의 장학생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석박사 과정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에 해당되는 장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해 고무적인 결과로 해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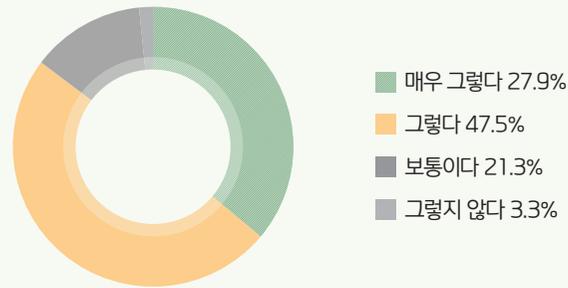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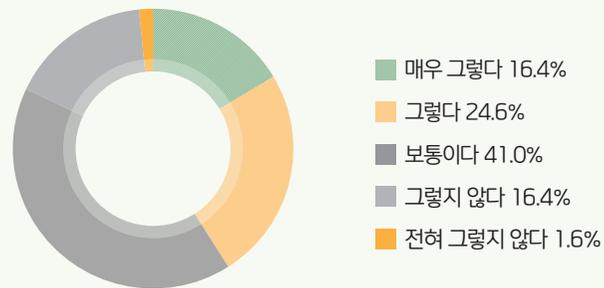
사업 참여 전보다 연구 주제에 사회문제를 더 고려하게 되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찾아보았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석박사 장학지원 사업을 통한 공공성의 실현

1) 공공성의 내재화

석박사 장학지원 사업의 장학생들은 ‘공공성’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을까. 과연 (재)숲과나눔에서 장학생들이 함양하길 바라는 ‘공공성’의 의미에 공감하고 있을까. 장학생 스스로 정의 내린 공공성에 대한 응답은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을 중요시하며,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고, 소수가 배제되거나 불평등을 겪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는 (재)숲과나눔이 추구하는 공공성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지난 4년간 석박사 장

학지원 사업을 통해 핵심 가치가 장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학생들이 응답한 공공성에 대한 정의 중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답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생각하는 '공공성'이란...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 약자가 고통받지 않는 사회,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기, 미래를 위한 희생과 노력,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만들어 가는 사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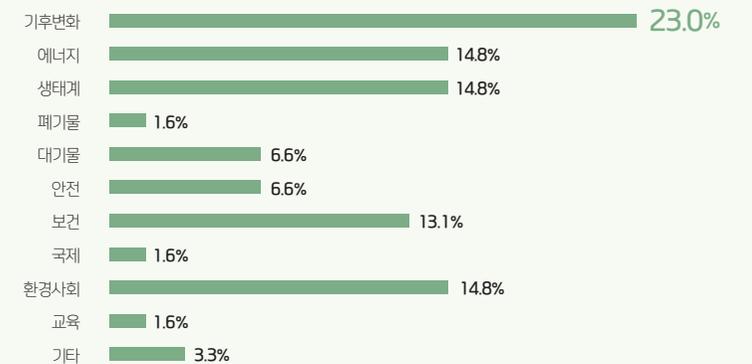
(재)숲과나눔이 석박사 장학생들이 함양하길 희망하는 공공성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 이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연구 질문에 있어 사회문제를 고려하는 것”,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 “사회 구성원과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2) 공공성의 실현

본인의 연구가 환경·안전·보건 분야 어떤 문제해결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기후변화 문제해결(23.0%)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에너지, 생태계와 환경사회 문제해결(각각 14.8%)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27.9%, ‘그렇다’가 47.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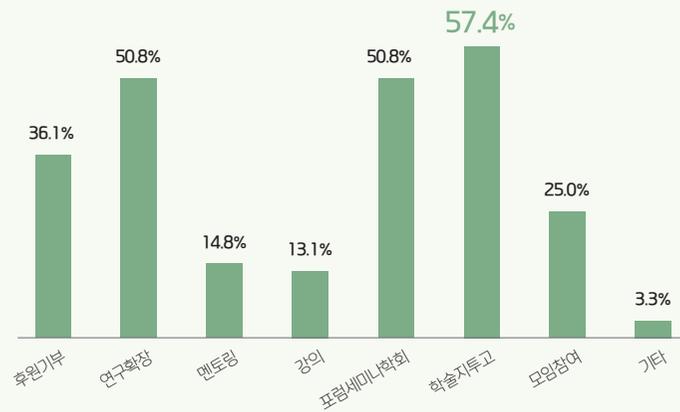
본인은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연구를 했나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중복 응답)



장학 지원이 종료된 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한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혹은 지원 종료 후에 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약 10명 중 9명이(88.5%)가 있거나 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학술지 투고(57.4%), 포럼 및 세미나 및 학회(50.8%), 연구 확장(50.8%), 후원 기부(36.1%), 모임 참여(25.0%), 멘토링(14.8%), 강의(13.1%), 기타 활동(3.3%)순으로 나타났다(중복 선택).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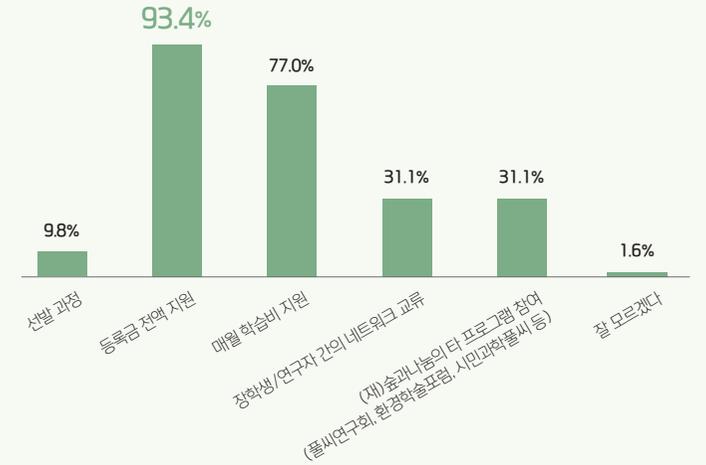


(재)숲과나눔 석박사 장학지원 사업 평가

임팩트 측정 과정에서 (재)숲과나눔 석박사 장학지원 사업의 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차별점을 도출하기 위해, 프로그램 세부 평가를 함께 진행했다. 숲과나눔 석박사 장학지원 사업에 대해서 장학생들의 대다수(98.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다른 장학사업과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는 매월 학습비 지원(68.9%), 세부 프로그램(OT, 캠프, 장학증서 수여식)(63.9%), 등록금 전액 지원(62.3%) 등을 주요 차별점으로 꼽았다. 그리고 (재)숲과나눔의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45.9%)과 선발 과정(27.9%) 또한 다른 장학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점이라 보고 있었다.

석박사 장학지원 사업 중 본인의 성장에 가장 도움을 준 부분은 무엇이였을까. 등록금 전액 지원(93.4%)과 매월 학습비 지원(77.0%)이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31.1%의 학생들이 장학생과 연구자 간의 네트워크 교류와 풀씨연구회, 환경학술포럼, 시민과학풀씨 등과 같은 (재)숲과나눔의 타 프로그램이 긍정적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했다(중복 선택).

석박사 장학지원 사업 중 본인의 성장에 가장 도움을 준 부분은 무엇이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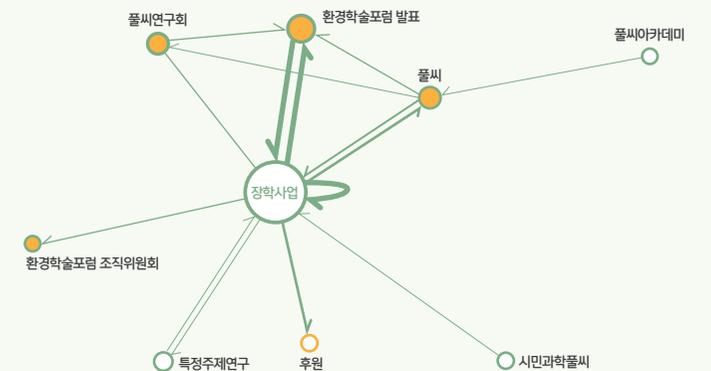


한편,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2.6%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사실 네트워킹 및 교류 프로그램은 1기(2019년도 지원)때 캠프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올해 선발된 4기의 경우 설문 응답 당시까지는 아직 네트워크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적으로 (재)숲과나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이 생성하는 지식생태계 네트워크의 양성을 알아보기 위해 장학생이 (재)숲과나눔의 타 사업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네트워크 교류 분석 결과를 확인하면 장학지원 사업 참여자가 (재)숲과나눔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거나, 타 사업 참가자가 장학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네트워크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숲과나눔 장학생 네트워크 교류 분석

*선이 굵을수록 횡수가 많고 원 크기가 클수록 타 사업과 연결이 많음



Impact Integration 임팩트 적용하기

(재)숲과나눔 석박사과정 장학지원 사업은 한 번 선발된 장학생도 재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 2년까지 장학지원을 제공한다. 선발 과정은 매년 진행되는데, 재지원자를 위한 지원서에는 ‘숲과나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나에게 준 영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다. 해당 질문의 응답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연구, 생각, 사회, 환경, 활동, 사람’ 등이 핵심 키워드로 도출됐다.

‘(재)숲과나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나에게 준 영향



(재)숲과나눔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장학 사업과 차별점이 있다. 장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변화의 장면들을 공유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 혼자만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아닌 환경, 보건, 안전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질문과 소통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재)숲과나눔’은 제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만약 재단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처럼 연구에 대한 조언을 해줄 장학생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제가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1,2기 장학생 남0정)

“(재)숲과나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제게 준 가장 큰 영향은 제 삶의 태도를 바꾸어준 것입니다. 단

순히 학문을 통해 제 스스로의 지적 성취만 이루는 것이 아닌, 제가 하고자 하는 학문의 초점이 제 주변과 사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도록 노력하자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3,4기 장학생 한0영)

“무엇보다 장학생으로서 받은 혜택을 통해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잠재성과 역량을 인정해 준 숲과나눔 재단에 큰 감사를 느꼈고 재단의 모토대로 숲처럼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되는 한 그루의 튼튼한 나무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2,3기 장학생 윤0기)

“(재)숲과나눔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학업과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주었고, 배움과 나눔의 가치, 나 혼자만이 아닌 배움을 다른 이들과 나누면서 느끼는 보람,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스며들어 퍼지는 영향력을 확인할 기회들을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2,3기 장학생 김0현)

“‘숲’의 미덕을 따르고, ‘나눔’의 힘을 믿고 그것을 실천해 나고 있는 숲과나눔 재단의 행보는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고, 제가 학업을 하는 이유와 목표와도 맥을 같이하였습니다.”

(1,2기 장학생 장0석)

“내 옆에 누군가 있다.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

(1,2기 장학생 최0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팩트가 아니다. (재)숲과나눔은 이번 임팩트 측정을 통해 만 4년간의 장학 지원의 결과가 재단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성에 맞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정도와 장면을 구체적인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재)숲과나눔은 장학 지원 종료 시점에 맞춰 해당 사업의 임팩트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임팩트를 확장·확산하는 데 주목할 계획이다.